

우리나라 보건간호원의 역할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학회지 제34호, 1982

김 화 중

면단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인력의 역할 및 기능 모형을 개발하고자 현재 정부가 면단위 보건요원으로 개발한 간호진료원과 종합보건요원의 역할 및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이들 두 요원들의 역할 및 기능 중 최대공약된 것을 추출하여 면단위 보건간호원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 및 기능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규정한 역할 및 기능을 현재 정부보건사업의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요원에 의해서 어느정도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규정한 역할 및 기능을 설문화하였다. 본연구의 대상은 1980년 12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의 면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 간호보조원 조산원으로서 본 연구에 표집된 수는 1,318명이었다. 이들 1,318명의 면단위 모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결핵요원들이 조산원, 간호원, 간호보조원의 자격으로 본 연구자가 제시한 보건간호원의 역할 모형에 어느정도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결핵요원은 각각 자기들의 책임업무만을 하고 있지 않고 모자보건요원은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또 다른 보건사업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족계획요원도 그의 업무책임이 아닌 모자보건사업, 결핵사업, 기타 다른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결핵요원도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기타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즉 면단위에 근무하는 모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결핵요원들은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요구에 그때 그때 부응하여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그들의 지식과 기술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하는 조산원은 간호원이나 간호보조원보다 직접 분만개조를 실시한 경험이 많아 나타났으며 보건교육 및 상담과 같은 건강증진적인 활동에는 간호원이 조산원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결핵요원과 가족계획요원으로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은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하는 간호보조원보다 모자보건관리에 대한 실시경험이 적지만 임부발견과 같은 업무에는 70~80%의 간호보조원이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결핵요원들은 지역사회주민의 영양관리 활동, 환경보건 활동, 학교보건활동, 지역사회 조직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 면단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조산원, 간호원, 간호보조원들은 경미한 병원의 치료를 거의 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원,

간호보조원, 조산원의 지식과 기술수준으로는 경미한 질병의 치료라는 기능을 부여할 수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으로 현재 면단위 보건간호요원 즉 조산원, 간호원, 간호보조원에게 직접 분만 개조를 중심으로 한 보수교육이 요망되며 또한 이들 요원들의 기본간호교육과정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일부 통합보건요원의 기본보건지식조사

순천간전논문집, Vol. 8, pp. 218~234, 1982.

문 순 복

결론 및 제언

통합보건 사업내용에 관한 요원들의 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2년 5월 통합 보건요원 교육에 차출된 전남·북 232명의 간호보조원을 대상으로 통합보건요원으로서의 기본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 전체 근무기간은 평균 6.3년 이었고 각 영역별로는 모자보건 1.21년 가족계획 2.51년, 결핵 1.67년이었으며 전남·북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전체 요원들이 결핵업무나 모자보건업무보다 가족계획업무에 치중되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체 보건지식 평균은 74.6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모자보건 75. 점, 가족계획 79.3점, 결핵 77.8점, 기타 72.6점으로 지식정도 역시 가족계획이 수위로 나타났다.

3. 각 영역의 근무기간별 지식은 가족계획에서만 근무기간이 길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모자보건과 결핵에서는 근무기간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일부지역 보건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결핵실과 가족계획실을 중심으로 —

월간간호, Vol. 1, No. 6, pp. 70~77, 1982.

이 경 옥